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21차 세션, 두려워할 사람을 조심하라, 루가복음 12:35-59 9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1입니다. 두려워할 사람을 조심하세요. 루가 복음 12:35-59.

루가 복음에 대한 Biblica e-learning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상속 재산을 나눌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탐욕의 문제를 다루고 참된 제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먼저 왕국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공급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문제를 바로 다루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예언적 모드로 전환하여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여전히 불안이나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이전 구절을 기억한다면, 그는 “내 어린 양 떼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어린 양 떼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자로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강조할 것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사실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2장 35절을 읽었습니다. 행동할 준비를 하고 등불을 계속 켜 두십시오. 그런데, 연관성을 주목하세요. 그는 당신이 무엇을 입는지,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왕국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공급하신 것처럼 옷을 입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옷을 입고 등불을 켜 두십시오. 혼인 잔치에서 주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즉시 열어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인이 올 때 깨어 있는 종들을 발견하는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섬길 옷을 입고 그들을 식탁에 기대게 할 것이요 그가 와서 그들을 섬길 것이요 만일 그가 이경이나 삼경에 와서 그들이 깨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복이 있도다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여기서 종들이라는 단어는 노예로도 번역되지만, 주인, 호기심 많은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지 알았다면 그는 집을 나갔을 것이고,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너희도 준비해야 한다. 인자가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41절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제때에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충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 입니까?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서 남자와 여자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지주의 비유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 종의 주인은 그가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와서 그를 조각조각 쳐서 불충실한 자들과 함께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 종은 엄중히 매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한 자는 가볍게 매를 맞을 것입니다.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세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해야 할 준비의 몇 가지 영역을 보여주기 위해 앞서 지적했던 비유를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계해야 하며 주님이 들어오실 때 자신의 준비 상태에 대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가 투사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노예와 그들의 주인의 이미지입니다.

노예들은 결혼을 위해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나타날 것이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인이 한밤중에 올 수도 있지만, 그는 들어올 때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들이 바로 문 앞에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입니다. 저는 영국에 살 때 왕실 행사 중 일부를 볼 때 이런 종류의 의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준비가 중요할 것임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부족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명령하거나 주인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처벌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베드로의 질문은 지금의 전체 논의를 다른 리더십 문제로 돌릴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종들의 머리인 청지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청지기로서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고, 청지기는 주인이 와서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매를 맞거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두려워할 사람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온다. 그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며 온다. 그러니 빨리 이 구절의 첫 부분을 살펴보자.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준비에 대한 부름 , 그리고 두 번째 , 예상치 못한 주인의 도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에 대한 부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준비를 촉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허리띠를 꼭 주세요, 35절. 허리띠를 꼭 주거나 허리띠를 잡으세요.

느슨한 종류의 가운을 입고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올려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의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고 먹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구절입니다.

준비 상태의 감각. 그는 말한다, 준비하라. 움직일 만큼 자유로워지려면 이런 종류의 준비 상태와 대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빛을 얻으십시오. 어둠이 너무 많아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상치 못한 하인이 오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노예들이 기다려야 했던 비유에서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을 강조하신 것이 그로 하여금 신하들을 노예로 묘사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인은 쿠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노예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가 노예들을 결혼 연회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인은 문을 열기 위해 직접 문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노예들은 주인이 도착하자마자 문을 열어주어 주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정확성과 인상적인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원한다면, 주인이 올 것을 기대하며 경계를 맑게 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기 37절에서 누가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주인이 오고 하인들이 준비되면, 주인이 직접 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직접 옷을 입고, 노예나 하인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식탁에 오면 주인이 돌아서서 노예들을 섬길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주님, 곧 주님 자신이 오실 준비가 된 사람들이 돌아서서 노예들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식탁에서 받을 보상, 존경, 명예는 주인의 오심이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에만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결혼 연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면,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제자도와 하나님 왕국에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준비 면에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에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언제든지 주인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이 특정 우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노예들이 기다리고 있던 주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노예들에게 상을 주면서 노예들을 섬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구절을 기억합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은 유대에서 도망쳐 갈릴리로 돌아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낚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주 예수님의 성격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을 조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들은 사실상 환상을 죽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예수의 체포와 죽음이 신의 왕국에 대한 꿈을 죽였다고 생각하며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곳에 갔을 때, 그는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배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직접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예수는 직접 그들을 먹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특정한 사건에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예수였다면, 저는 여기서 제 성경을 여는 것처럼 접시에 아침 식사를 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베드로에게 다가갔을 때, 저는 “베드로, 아침 식사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올리는 순간, 저는 그것을 그의 얼굴에 놓았을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뉘시하러 간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모든 것을 멈추고 그를 따라 사명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들어오고, 일을 하는 데 매우 조심하던 노예들은 주인이 식탁에서 기다리며 자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와 수치 사회에서 당신은 노예에게 주어지는 가장 높은 형태의 명예와 존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계하고 준비된 자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도적이 어떤 곳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적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도둑 이미지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베드로후서 2장 3절,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같은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 제자들은 준비되어야 한다. 제자들은 준비되어야 한다.

저는 조엘 그린의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조엘 그린의 해설을 보면서 사랑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주인은 지위가 역전되어 노예들을 대신하여 노예적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지금 주인으로 묘사할 정도로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지위 의식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지배되는 일반적인 가정 관습 대신 하나님의 가정을 설정하는 듯합니다.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맹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예수는 청중에게 종말의 비전, 지위의 위계가 무효화된 가정의 현실을 제공합니다. 이 비전을 통해 그는 충실한 자들을 기다리는 보상의 본질을 선언하고 청중에게 중간과 종말에서의 충실함의 본질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른 곳에 두고 두려워할 사람을 찾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께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수께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는 41세였고, “그런데 예수, 당신은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당신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꽤 까다롭습니다. 제 말은, 당신은 우리에게 특정한 일을 하라고 도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 모두에 대한 것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화의 영어 번역에서 우리는 관리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청지기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노예일 수도 있고 주인이 자신의 부재 시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맡길 수 있도록 임명한 집안일을 돕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업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많은 관찰과 신뢰에 따라 귀속되거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리더십에는 의무감도 따른다는 것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충실함이 필요하고, 두려워해야 할 자가 오면 심판의 하나님이 오실 방식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엄하게 심판하시려고 일어나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앞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주인이신 주님은 충실한 종들을 기꺼이 섬기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여기서 몇 가지를 제기하는데, 저는 비유의 그 부분에서 여섯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단의 한 구성원이 신청서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주제를 꺼냅니다. 예수께서 관리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반드시 데려온 외부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그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양육되고 신뢰받은 노예 중 한 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우리는 특정한 리더십 책임을 부여받고 할당받을 수 있으며, 그것과 함께 주요 책임이 요구됩니다. 주인이 소유물을 위탁할 때 주인은 소유물의 일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경제학자, 즉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그에게 두는 신뢰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섬기고, 주인을 대신하여 그의 명예를 위해 일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당연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듯하며, 또한 일부 청지기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충실함이 축복과 승진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일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지도자는 보상을 받지만, 남성 노예와 여성 노예의 측면에서 신하를 학대하거나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자원을 남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직무 설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에 따라 처벌을 분배할 것이라고 말할 만큼 공정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첫째로, 충실한 노예나 하인들이 그들을 섬기는 주인에게 불명예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왕국의 리더십은 학대보다 우월한 지위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앞의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주인이 돌아서서 식탁에 있는 노예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미 권력과 지위의 문제를 전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알고 싶어한다면, 그는 베드로에게 사도로서 자신의 일을 잘한다면 충실함이 보상받을 것이라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비례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59절에서 결정을 촉구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저는 읽었습니다.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고, 이미 불이 붙었 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나는 세례를 받아야 할 세례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고통은 얼마나 클까.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히려 분열이로다.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분열되어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질 것이다.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오르는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온다 하느니라.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뜨거운 열기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모양을 분별할 줄 아느니라. 그런데 왜 지금의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리고 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너희가 고소인과 함께 재판관 앞에 갈 때, 길에서 그와 합의하도록 노력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희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너희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너희를 옥에 가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마지막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으리라.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비유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신 듯합니다. 그가 청지기가 자신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충실함은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무책임한 리더십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실제로 일부 학자들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게 만든 이 중요한 진술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분열을 가져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왜 왔는지에 대한 열정적인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사실 친족 집단 역학에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너무 편안하거나 너무 아늑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왕국적 결정은 너무나 중요해서 사람들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 네트워크에 속하려는 욕망과 필요성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계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도전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가 올 때나 더위가 올 때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과학에 대해 읽을 능력이 없는 듯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들은 반응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불의 이미지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성경에 여기저기서 많은, 많은 사례와 관련하여 불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 중 하나는 , 제 생각에, 존슨이 묘사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방식을 보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루가 복음 주석에서 티모시 존슨은 이렇게 썼습니다. 불의 이미지 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하스 왕의 군인들을 상대로 주님으로부터 불을 끌어내린 선지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9장 54절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런 종류의 보복을 행사하고 싶어했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이 약속한 종말론적 심판을 예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이 예언적 배경을 지배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베어질 것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서 강합니다. 심판의 도구로서의 불은 17장 29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반면에 누가는 또한 사도행전 2:3에서 성령의 은사와 연관시키는데, 이는 누가복음 3:16에서 요한의 사역에 대한 언급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열정적인 호소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사람들이 급진적인 제자도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로 불과 심판을 가져오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그분은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란 무엇일까요? 이 세례의 본질에 대해 몇 가지 견해가 표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언어가 재앙을 의미하거나 예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오순절의 영 세례와 연관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둘의 조합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앞으로 몇 가지 도전을 시도하고, 재난을 겪거나 죽음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왕국 사업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는 값싼 평화, 일종의 값싼 평화에 대한 이해를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열을 가져오기 위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족 구성원이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국 우선순위가 왕권 우선순위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마스 복음서에서 이런 종류의 가르침의 유사점을 발견합니다. 저는 토마스 복음서가 우리 성경에 없다고 말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사도 교부들의 글 중 하나나 일부 위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성경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본문을 접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의 전통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과 공명하는 듯합니다.

토마스 복음서 1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땅에 승천을 주러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불과 칼과 전쟁을. 왜냐하면 집에 다섯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대적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며, 그들은 홀로 서 있을 것이다. 내가 밑줄을 친 것처럼, 만약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둘들이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낙원에는 너희를 위한 다섯 그루의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름이나 겨울을 바꾸지 않으며,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는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내가 심판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급진적인 제자도를 요구하며, 이 급진적인 제자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장소, 종말에서 명예로운 지위가 있을 것이다.

예수는 평화를 위해 오지 않습니다. 제2성전 유대교나 유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제도가 이제 여기에서 면밀히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조차도 한 사람이 왕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다른 한 사람이 반드시 그 결정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을 때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 급진적인 부름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꾸란에서 성인 공동체, 남성만으로 구성된 종파는 사막을 떠나 정착하여 친구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 관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요구하십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자연스러운 친족 관계를 파괴하는 분열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왕국에 대한 결정이 합의되지 않은 측면에서의 분열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를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알다시피, 그가 여기서 언급한 명명된 관계는 당시 친족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구성원의 유대 관계입니다. 예수는 여전히 그들이 그러한 관계보다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우선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강의 중 하나에서 말했고 그 특정 세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듯이, 예수는 허구적 친족 관계, 즉 하나님 나라의 가족 역학이 자연스러운 친족 관계, 우리의 자연스러운 가족 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저는 이 점에 대해 저와 의견이 다른 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허구적 친족 관계가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없애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가족, 그들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가족이 됩니다. 이제 저는 그것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입장은 우리는 예수께서 가족을 돌봐야 할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따라가라고 부르지 않았고, 가족을 제쳐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은 급진적인 제자도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앞으로 올 일들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 때, 그의 아내를 뒤에

남겨두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가 결혼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패턴을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가 자녀에게 가장 잘 아는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실 때조차도요. 저는 그가 자연스러운 유대감을 훼손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사람들이 더 큰 요점을 만들기 위해 알고 있는 친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친족 관계,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시부모, 시어머니, 며느리로서 자연스러운 친족 관계에 가지고 있는 유대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 그들이 맺은 유대감, 우선순위, 그리고 이 관계에 들어가는 감정과 충성심은 예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헌신의 감각은 왕국과 그 사업으로 다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순위가 걸려 있고 제 생각에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전에 날카롭게 저와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조금 연구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상의 가족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는 방식이 예수가 내려야 할 결정은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헌신, 충실함, 충성심의 수준에서 왕국의 문제를 먼저 선택하세요. 자연스러운 가족적 유대감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저는 예수님이 당신이 남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가족을 버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내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가족적 유대감을 버리거나 피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 가족 중 일부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봅니다. 헌신과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과 그 위에 있는 왕국에 대한 충실함을 우선시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우선시한다면, 그가 앞서 말했듯이, 다른 것들이 추가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왕국은 헌신의 수준에서 2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팀에 대한 경계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절대적인 충실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절을 해석하는 능력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어떻게 올지,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인자의 임재를 읽을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왕국 사업에서 예수께서 위선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계절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자의 임함의 징조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임할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린이 말했듯이, 만약 그들이 예수의 사역의 본질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특히 신성한 목적을 전파하는 그의 행위로 인해 이미 임한 심판을 고려할 때, 그들은 종말론적 심판을 피하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자가 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자는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매우 가혹해 보이고, 매우, 매우 요구적이고, 꽤 힘든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관계보다 우선시하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는 당신을 부르고 있으며, 당신이 제자로 헌신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일하게 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항상 장밋빛일 수는 없지만, 그는 당신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을 줄 것입니다. 심판의 신이 오면, 오, 가족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할

변명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X, Y, Z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할 변명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후의 가르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는 그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부름입니다. 응답할 때는 지금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결정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아마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기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 신의 개입을 원한다면, 신은 우리의 모든 헌신, 충실함, 충성심을 요구하고 요구합니다. 그는 헌신과 봉사에 실패한 사람들만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징벌적 보복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는 충실한 자들에게 상을 주고 영예를 주기 위해 옵니다. 그가 당신과 저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우리의 일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헌신하는 데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당신의 여정을 풍요롭게 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다니엘 K. 다르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1입니다. 두려워할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루가복음 12:35-59

.